

중국 섬유산업의 하반기 사업 - 기술력 강화,

서부 개척 등이 과제

중국의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 경제 운행국은 섬유산업의 상반기 상황을 분석하여, 하반기의 사업 추진 지침으로서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①구조 개선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②WTO가맹의 잇점을 충분히 살려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 ③수급 균형을 중시하여 생산·공급은 시장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등을 발표하였다. 하반기의 경제 발전 방침으로는 경영이 부실한 국영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동안 개발의 그늘에 있던 서부지역의 개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 기업과 서부 기업이 서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그 동안 동부 기업들이 터득한 외국의 선진 경험과 기술이 서부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결합시켜 섬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WTO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잇점을 잘 살려, 그 동안 각종 수출 장벽 때문에 제한을 받아온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규격화된 범용 상품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섬유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하여, 특히 유럽시장에서 환경을 중요시함을 감안하여 환경에 해롭지 않은 상품을 수출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작년에는 초봄부터 합섬 시장의 경기가 악화되었다가 제2사분기(四分期)에 잠시 호전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합섬기업들이 시장 규모를 무시한 대규모 증설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품의 재고가 늘어나면 시장규모에 맞춰 기업이 자주적으로 감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협회는 적절하게 업계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섬유경기는 수출이 증대하기도 하여 대체로 순탄하였으나, 합섬업계와 같이 업종에 따라서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는 중복투자를 막고 동업자끼리 가격을 지나치게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였다.